

영혼의 '보릿고개' 넘길 예술혼 고대

“ 시대와 인간의 접경지대를 발빠르게 탐색하는 소설이 암울한 시대의 벽을 뛰어넘을 희망의 상상력을 불어넣어줄 모양이다. 단편집과 시집 출간도 꾸준히 이어지며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문학전집류, 산문집들이 황폐해가는 영혼 곁에 찾아간다. ”

젓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소돔과 고모라의 퇴폐가 은성하는 곳에 시와 소설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문학은 그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피어나는 고난의 꽃이기 때문이다. 멀리 남도의 꽃소식이 앞마당까지 다와 있는 지금 이곳의 세상살이는 그 어느때보다 팍팍하다. 일용할 양식이 갈급한 때에 영혼의 '보릿고개'는 더 빨리 찾아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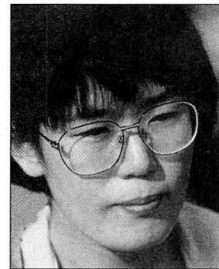
문학의 본령이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인간 보편성을 향해 오르는 희망의 사다다리를 놓는 데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암울한 시대의 벽을 뛰어넘을 위대한 상상력이 힘을 발휘할 때다. 출판대공황의 매서운 찬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문학출판계는 현재 참호를 파고 소나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수세적인 위치에 머물고 있지만, 인간 상상력의 대지에 굳건히 발을 딛고 가난한 시대와 영혼을 위해 새로운 작품들을 속속 기획·준비하고 있다. 영혼의 단비를 바라는 독자들이 있는 한 문학작품의 생산은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시대와 인간의 접경지 탐사하는 장편소설들

다양한 문학장르 중에서 서사문학인 소설은 각 시대와 인간의 접경지대를 가장 발빠르게 탐색한다. '묘사나 설명을 생략하고 빠르면서도 부드럽게 활주하는 여백의 문체'를 지닌 작가로 평가받는 이윤기의 장편소설 《뿌리와 날개》(현대문학)가 이달 중에 독자들을 찾아간다. 《현대문학》에 연재되었던 이 작품은 우리시대의 수처이자 양심의 척도인 해의 입양아들의 정체성을 깊이 파헤친 문제작이다. 세계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김현순의 장편소설 《브란덴부르크의 나날들》은 재독 한인들의 한 많은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간다.

지난해 이문열의 《선택》으로 촉발된 폐미

영혼의 단비를 바라는 독자들이 있는 한 문학작품의 생산을 멈출 수 없다. 뒷줄 왼쪽부터 이윤기·함정임·이혜경·김인숙·이경자·이청준씨.



니즘 논쟁에서 논객으로 활약하기도 했던 이경자는 장편소설 《사랑과 상처》(가제, 실천문학사)에서 여성의 신산스런 삶을 통해 남성지배사회의 허위를 낱알이 파헤칠 예정이다. 강원도 양양을 배경으로 한 여인의 일생을 통해 남성성기 숭배와 출가의인이라는 가부장적 사회의 억압을 질박한 강원도 사투리로 풀어낸다. 한편 전10권으로 기획하고 있는 이재운의 대하역사소설 《칭기즈칸》(해냄)은 다음달에 5권이 출간된다. 단순한 정보자료서가 아니라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경영자로서의 칭기즈칸을 통해 오늘의 난국을 헤쳐갈 지혜를 이끌어내겠다는 야심작이다.

해의 장편소설로는 장 폴 카우프만의 《나폴레옹》, 베른하르트 슬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 아르투어 슈니츨러의 《마지막 도박》 등이 세계사에서, 그리고 존 버거의 《결혼을 향하여》(가제)가 해냄출판사에서 나온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던 나폴레옹의 마지막 5년 동안의 일상을 그린 것으로, 인간 나폴레옹에 무게를 둔 작품이다. 베일에 가려진 연상의 여인과의 격정적인 첫사랑의 과정을 그린 《책 읽어주는 남자》와 에이즈라는 천형의 질병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결혼을 향하여》는 인간의 영원한 테마인 사랑과 결혼의 의미를 새롭게 묻는다. 《마지막 도박》은 이성적인 사고나 진지한 감정보다는 일시적이고 유희적인 충동에 운명을 맡겨버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질타한다.

장편소설이 장대한 스케일과 복합적인 인간군상의 엮힘을 통해 삶의 다면성과 총체성을 지향한다면, 단편소설은 사건과 인간들

의 갈등을 응축적이고 간결하게 담아냄으로써 여운과 공감의 깊이를 더하는 장르다. 우리가 만나게 될 단편소설집에는 지난해 타개한 김소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작품이 들어 있다. 술에서는 오는 4월에 김소진의 1주기 추모기념으로 그의 마지막 짧은 소설집 《민물고기 전시회》(가제)와 유작 산문집 《아버지의 미소》를 준비하고 있다. 김소진의 미망인이자 소설가인 함정임의 《동행》(강)은 남편과 함께 했던 삶과 죽음의 시간을 망각의 늪에서 호명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민혜숙의 연작소설집 《신림동 연가》(문학과 지성사)는 우리 교육현실의 비인간성을 폭로한다. 학벌우위의 사회풍토에 병들어가는 학생들, 일류대학을 향한 학부모들의 극성,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여고생의 자살 등 우울한 초상화가 그려진다. 그 외에 이혜경의 《불의 전차》, 박경철의 《빙어가 돌아오는 계절》, 일본의 신세대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의 《도마뱀》(이상 민음사), 그리고 김인숙의 소설집(창작과비평사)도 나온다.

시집 출간도 꾸준히 이어질 것

시의 시대가 끝났다는 성급한 평가를 반증하듯 시집의 출간도 꾸준한 전망이다. 영화 <편지>로 뒤늦게 베스트셀러 시인이라는 영예 아닌 영예를 누리고 있는 황동규 시인, 올해 환갑을 맞아 <어떤 개인 날>부터 <외계인>까지 40여년 동안의 시작업을 정리한 <황동규 시선집> 두권이 문학과지성사에서 나온다. 이와 함께 황동규의 문학적 성과와 인간적인 면모 등을 문학평론가·지인·후배·동료의 글을 통해 조망한 <황동규 깊이 읽기>도 함께 출간된다. 장석남의 《젖은 눈

과 안찬수·윤제림·이영진의 시집(술), 성기완·주창윤·이기철·신중신의 시집(문학과지성사)도 준비중이다. 민음사는 <세계시인선>으로 일본시인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하쿠슈 시선집》, 《사쿠타로 시선집》, 《다쿠보쿠 시선집》, 《바쇼 시선집》 등이 그것이다. 한편, 열림원에서는 류시화 시인이 세계의 잠언시들을 모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으로 인생과 사랑에 대한 아포리즘적 성찰의 기회를 마련한다.

문인들의 문학전집과 선집 발간작업은 막대한 시간과 인원, 경비 등이 소요되지만 문학적 자산을 보존·전승한다는 의미에서 값진 작업이다. 열림원에서는 <이청준 문학전집>의 1차분으로 <낮은 데로 임하소서>·《서편제》·《소문의 벽》·《조율사》 등 중단편집 4권을 펴낸다. 발자크만큼이나 거대한 문학적 족적을 남긴 황보 염상섭의 문학적 정수를 담은 <염상섭 선집(실천문학사)>으로 이미 출간된 《효포》에 이어 《삼대》와 《만세전외》도 계속된다. 사계절에서는 올해 문익환 목사 5주기를 기념하여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문익환 전집> 12권을 완간할 예정이다. 이 전집에는 통일론·옥중서신·신학론·수필 및 설교집 외에 시집 두권이 포함되어 문학가로서의 문익환을 만날 수 있다.

문예창작의 정도와 방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문예이론서와 비평서도 문학의 영토를 비옥하게 할 것이다. 동화에서 소설에 이르기까지 독자가 모든 픽션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방법을 가르쳐주는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의 숲으로 가는 다섯 발자국》(열린책들), 포스트모던적 글쓰기의 시조로 평가받는 보르헤스의 작가론·작품론인 베라트리즈 살로의 《변방에서의 글쓰기-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인간사랑), 그리고 90년대 젊은 시인과 작가들에 대한 세심한 비평을 가한 김주연의 비평집 《가짜의 진실》(문학과지성사)이 나온다.

그 외에 옥타비오 파스의 산문집 《활과 리라》(술), 괴테의 기행집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푸른숲), 저스틴 매트의 에세이집 《나의 아름다운 정원 이야기》(살림) 등이 아름다운 산문으로 황폐해가는 영혼 곁에 찾아간다. — 박천홍 기자